

멜라민 사료 380톤 비료로 재활용

이용희 의원, 사료기업 재고 263톤 포함 ... 채소에 흡수되지 않아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가 완전 폐기되지 않고 비료로 재활용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은 10월6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 29-30일 멜라민이 나와 폐기 처분키로 한 양식 물고기용 사료와 같은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사료원료 117톤, 사료원료를 제공한 기업의 재고 263톤 등 총 380톤이 시·도 공무원 입회 아래 비료공장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는 채소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비료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평 장관은 “일단 정부는 문제의 사료 및 사료원료를 사료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사업자들이 시·도와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며 “비료로 사용했을 때 영향이 없을 만큼 농도가 낮지만, 중국 채소에서 멜라민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멜라민 성분이 비료에 섞여 있어도 채소에 흡수가 되지 않는 만큼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07>